해남 땅끝, 체험·체류형 관광지 된다

郡, 60억 들여 오토 캠핑장·해양자연사 박물관 신축

민간투자 유치 통해 수영장 등 해양 팬션단지 조성도

전남의 대표적 관광지인 해남 땅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체험형 관광지로 거듭 태어난다.

군은 18일 "땅끝이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고, 해양사 박물관을 신축하는 등 체험형, 체류형 관광지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우선 20억원을 투입해 땅끝 관광지내 1만6천628㎡부지에 80대의 차량이 캠핑할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고, 내달 5일부터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캠핑차량이 없는 관광객을 위해 2억원을 들여 침대와 화장실, 조리시설 등을 갖춘 4인용 캐라반 10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1일 이용료는 주말 10만원, 평일 8만원이며,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남군청 문화관광과(061-530-5258)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또 '희망충전 땅끝 추억여행'을 주제로 오는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10개월간 봄, 마음, 생각의 소생을 주제로 명상과 놀이치유, 원기회복, 소망기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땅끝의 이미지를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비롯해 땅끝 관광 활성화 추진단(only one) 구성, 땅끝 관광지 해설사 등 인력 양성, 땅끝 팬클럽 조직, 땅끝마을 홈페이지 강화, 체험안내 지도 제작 등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와함께 오는 2010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양자연사 박물관도 신축한다. 이 박물관에는 세계 최대의 고래뼈(28m)와 화석류, 산호류 등 6만여점의 다양한 해양 동·식물이 전시된다.

박물관 주변에는 야외 음악당 등 체험형 시설을 조성,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65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땅끝에 수영장과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해양 펜션단지를 조성하는 등 체류 시설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밖에 땅끝에 희망의 종탑을 세우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들의 참배 공간을 마련하는 등 땅끝 성역화 사업도 준비중이다.

김성홍 해남군 관광개발 담당은 "전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땅끝에 다양한 시설을 마련, 체험형,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이면 관광객들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 기자lucky@kwangju.co.kr

강진서 올 첫 보리수매

2008년산 첫 보리 수매가 지난 16일 강진군 신전면 영관창고에서 시작됐다. 강진군의 보리 수매는 오는 7월 31일까지 35개소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열린다. 강진지역에서는 올해 22만2천705가마가 수매된다. 〈강진군 제공〉

강진 최고급 쌀 생산단지 모 고사 논란

농민들 "모판용 상토 불량…두차례나 파종"

회사·농협측 "10년 넘게 사용, 육묘상 실수"

강진군의 최고급 쌀 생산단지인 '탑라이스' 단지에서 모내기를 끝낸 모가 말라죽어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진군과 농민들에 따르면 작천면 탑라이스 재배단지에서 모가 노랗게 고사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곳은 군이 프리미엄급 쌀 생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친환경 재배단지로 집중 조성했으며 42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들어 김모(56), 박모(65)씨 논 1만1천여㎡를 비롯해 대부분 논에서 모가 말라죽고 제대로 활착을 하지 못해 일부 농민들은 인근 해남에서 모를 추가로 구입, 모내기를 다시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모 고사 원인에 대해 농민들은 군과 농협이 올해 새로 공급한 모판용 흙(상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농민들은 "지난 4월 육묘 당시에도 볍씨가 하얗게 변하고 틔운 싹도 노랗게 변해 두차례나 파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과 상토 회사 측은 "10년 넘게 문제의 상토를 활용, 육묘를 해왔으나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농가의 육묘 과정에서의 고온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정확한 고사 원인 규명을 위해 문제의 상토를 이용, 기술센터에서 재 파종을 했다"고 밝혔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얘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란다"

LG화학 나주공장 '한맘회'

'백민원' 어린이들과 야유회

LG화학 나주공장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LG화학 나주공장 여사원회 모임인 '한맘회' 회원들은 지난 14일 백민원 원생과 함께 광주 우치공원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

백민원은 보호자가 없는 3세 이상 18세 이하의 아동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

LG화학 나주공장 사원들은 지난 199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원생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이상연 공장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사랑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대한조선과 함께 하는 2008 청소년 국악캠프

해남문화원 8.4~8일까지

해남문화원이 대한조선과 함께 '2008 청소년 국악캠프-문화로 모시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국악캠프는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해남문화원에서 열리며 강강술래, 우수영 농요 배우기, 강강술래 연극, 소리를 바탕으로 한 미술치료, 탈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국악캠프 강사진은 강강술래 보존회 회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참가 인원은 해남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80명을 모집한다.

해남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국악캠프는 기업과 지역 문화계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해양사고 주의하세요"

선박기술공단 완도지부, 사진전 개최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지부장 김동철)가 최근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완도연안여객선 터미널내 1층 대합실에서 해양사진전을 열고 있다. 〈사진〉

한국 해운조합 완도지부 협조로 열리고 있는 이번 사진전에서는 태안 허베이스프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등 해양사고 사진 54점이 전시되고 있다.

김동철 지부장은 "바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해양사고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갖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정기적으로 해양사고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뽕나무 '오디' 농가 새 소득원

함평 나비골 농협, 올 70여t 판매 나서

함평 나비골 농협(조합장 윤한수)이 뽕나무 열매인 오디를 일괄 수거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오디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재배됐으나 최근 수요가 증가하면서 함평을 비롯해 영광과 순천, 담양 지역 등에서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고 있다.

오디는 특히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리노레인산이 다량 함유돼 동의보감에 따르면 '늙지 않게 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윤한수 나비골 농협조합장은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60여 농가가 생산하는 70여t의 오디를 일괄 수거해 판매하고 있다"며 "현재 1kg당 7천500원선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구입 문의 (061-323-2111)

한편 영광소방서(서장 박병주) 직원 100여명은 지난 17일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조갑례(여·67)씨 밭에서 오디 수확을 도왔다.

영광소방서 직원들은 또 나비골농협과 협의를 거쳐 이날 수확한 700kg의 오디가운데 500kg을 구입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화순농기센터 문귀동씨 '스타 지도사' 선정

문귀동〈사진〉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지도사가 17일 '스타 지도사'에 선정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문 지도사는 지난 79년부터 수출농업 육성과 생산비 절감은 물론 화순 10대 농·특산물의 기술보급과 유통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

'스타지도사'는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회 농업기술보급과 농가 경영혁신 실적이 우수한 분야별 컨설턴트를 선발, 표창하는 제도다. /화순=조성수기자 css@